

광주시-교육청, 고졸인재 정주지원 민관 거버넌스 구축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24일 시교육청 시교육원 대강당에서 '고졸 인재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지역 정주 기반 마련 거버넌스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해 지역대학 2곳,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역 13개 직업계고등학교 등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경제계·대학·직업계고 등 19곳 참여...직업교육 협력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채용·정주여건 조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후학습, 지역 정주를 연계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된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24일 시교육청 시교육원 대강당에서 '고졸 인재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지역 정주 기반 마련 거버넌스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해 지역대학 2곳,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역 13개 직업계고

등학교 등 총 19개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협약은 고졸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약기관들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후학습, 지역 정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형 마이스터고,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발전특구 등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사업에 대한 연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졸 인재 고용 촉진과 정주 여건 조성, 채용 기반 확대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거버넌스 운영을 총괄하고,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식에서는 교육부 직업교육 담당 과장의 '중등직업교육 정책 추진 방향' 특강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과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정책,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협약이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의 소중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드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학생의 미래 성장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 멕시코·페루 등 중남미시장 개척

7개 기업 323만달러 규모 수출 업무협약...사후관리 강화

전남도 중남미 시장개척단이 멕시코시와 페루 리마에서 총 323만달러(한화 약 48억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 진입을 위해 중남미 주요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사전 기획형 마케팅 방식으로 운영됐다. 글로벌 사우스 시장은 아시아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중개발도상국 지역으로, 선진국을 지칭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전남도는 제품 경쟁력이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 7개사를 선발하고, 현지 바이어와 최소 2회 이상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등 행사 이전 단계부터 실질 계약 성과 창출에 역점을 뒀다. 그 결과 총 5건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주요 실적으로 멕시코시에서 경향산업(단열재·보온재) 100만달러, 봉강천환경(유기질 비료) 10만달러를, 페루 리마에서 경향산업 200만달러, 베타네이트(방역기) 10만달러, 봉강천환경 3만달러의 협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고려오트론(유선통신장비), 대륙식품(김), 녹차원·서향식품(액상차) 등 참여기업도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며 향후 계약 가능성을 확보했다. 멕시코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물류 거점으로 활용도가 높은 국가다. 페루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시장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연계한 바이어 관리, 후속 상담, 계약체결 지원 등 단계별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남미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핵심 전략 지역이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안착하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 2026 중남미 시장개척단이 멕시코시와 페루 리마에서 총 323만달러(한화 약 48억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도시공사, 선운지구다사로움 27세대 일반분양

전용 49~84㎡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 책정 내달 3일 1순위 청약·6일 2순위...10일 당첨자 발표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선운지구 다사로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공가 27세대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기존 임차인 퇴거로 공사에 명도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24일이며,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다음달 3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달 10일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9㎡ 16세대, 전용 76㎡ 3세대, 전용 84㎡ 8세대로 구성

됐다. 해당 주택은 기존 거주자가 퇴거한 현 상태 그대로 인계되므로, 청약 희망자는 계약 전 지정된 개방 일자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적응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이며, 당첨 시 3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자세한 모집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로 하면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선운다사로움 일반공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 지역 내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공급이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상황을 돕는 든든한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우산신협은 최근 웨딩그룹유더스 광주에서 열린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관 '2025년 사업평가 및 2026년 사업설명회'에서 경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산신협, 지역밀착 금융 성과 빛났다

신협 광주전남본부 주관 평가 '경영최우수상'

광주 우산신협이 신협중앙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밀착형 금융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우산신협은 최근 웨딩그룹유더스 광주에서 열린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관 '2025년 사업평가 및 2026년 사업설명회'에서 경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 신협을 대상으로 경영 건전성과 성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우산신협은 조합원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운영 성과를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주효했다.

금융 분야의 기능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 경영을 지속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역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재일 우산신협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 경영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 신임위원 위촉

문만식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강정환 밀양 상남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문만식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과 강정환 밀양 상남농협 조합장을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은 '농협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운용과 부실조합 구조개선, 자금 지원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조합장 사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4인(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국회 1인 △조합장 등 농협 3인 △농업인단체 및 학계 4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강정환 농협중앙회장은 "강정환 조합장과 문만식 조합장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로



농협중앙회는 문만식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과 강정환 밀양 상남농협 조합장을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중앙회, 농축협 시설물 건립 교육

광주·전남·전북 임직원 110명 참여...기획·공사관리 등

농협중앙회는 24일 농협 광주본부에서 광주·전남·전북 지역 농축협 임직원 110여명을 대상으로 '농축협 시설물 건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축협의 고품질 시설물 건립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

램으로 마련됐다. 2017년 시작된 이 교육은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며, 지난 6년간 총 19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교육은 △사업계획 수립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등 기획 단계와 △설계·공사·감리 계약 △공사관리 실무 등 계약 및

시공 관리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부터 계약, 공사 관리에 이르는 건설 전반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촌지역의 고품질 시설물 건립으로 이어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